

불구동물 등장 시조와 “靑개고리 腹疾호여 주근 날 밤~”의 해석

이영태*

〈국문초록〉

이 글은 불구동물이 등장하는 시조의 특성에 기대 “靑개고리 腹疾호여 주근 날 밤~”을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조에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이것이 불구상태에 있는 것은 드물다. 흔히 이런 시조에 대해 당대의 부조리한 상황과 결부해 읽어내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시조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에 기댔을 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시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불구동물이 등장하는 시조는 ‘진지한 발화’가 아니라 ‘허튼소리’가 진술되는 단계에서 가창된다. 신체가 멀쩡한 자들이 흉내낼 수 있는 기형은 어떤 것이건 희극적이기에 자신의 불구를 망각한 개구리, 두꺼비, 개미의 행동은 가창공간에 있던 참석자들에게 희극적으로 가능하다. “靑개고리 腹疾호여 주근 날 밤”(#2834)에서 청개구리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라 #3160에 등장한 새끼 개구리이거나 혹은 공간의 분위기를 이미 저해했던 참가자가 가창공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결국 가창공간의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경우, 불구동물 등장 시조는 교훈적이거나 비판적 시각과 관련된 게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를 유지·고조시켰던 노래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불구, 시조, 허튼소리, 교훈, 분위기

1. 머리말

시조에 ‘동물’이 등장하는 것은 흔하다.¹⁾ 동물들은 개개의 특성에 따라 화

* 인하대학교 BK연구교수.

1) 이 글에서 지칭하는 ‘동물’은 포유류, 조류를 비롯해 파충류, 곤충류 등을 포괄한다.

자의 진술을 드러내는 방편이다. 송골매는 “쟁사냥(#107)”을 하고, 개는 “꼬리를 회회치(#129)”고, 고래는 “물 혀 치(#175)”밀고, 원앙새는 “雙雙綠潭中(#2668)”하고, 귀뚜라미는 “긴 소리 자른 소리(#352)”내고, 두더지는 “씩 파고 들(#1109)”고, 새는 “하늘노 날(#1109)”머가 그것이다.²⁾

그러나 동물이 등장하되 그들의 몸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기암이 불기암이 존등 쪽 부러진 불기암이(#134)”와 “흔눈 멀고 다리저는 저 독거비(#923, #3159)”, 그리고 “痔疾三年 腹疾三年 邊頭痛 內外丹骨 알른 조그만 숫기이고리(#3160)”처럼 ‘존등 쪽 부러지거나 ‘눈이 멀고 ‘다리 절고 ‘치질’이나 ‘편두통’까지 앓고 있다. 이러한 불구동물이 등장한 시조를 흔히 ‘당대의 부조리한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³⁾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설시조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과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

이 글은 사설시조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와 가창공간의 여러 정황에 기대어, 불구동물 등장 시조의 역할과 불구를 소재로 삼은 이유, 그리고 불구와 관련된 동물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 살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청개구리의 죽음과 나머지 동물들의 질편한 풍악이 대비되는 “靑개고리 腹疾 흔여 주근 날 밤~(#2834)”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이 시조에 대해 “동물 을 의인화하여 그의 생태를 해학적으로 표현”⁴⁾했거나 “인간행사의 허황됨”⁵⁾처럼 교훈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설시조 이해의 전제와 가창공간, 그리고 불구를 고려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2) 심재완 편, 『교본 역대시조전서』, 재판:세종문화사, 1972의 통번에 따른다.

3) 이민복, 「사설시조에 나타난 골계미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1987 ; 안운호, 「사설시조에 나타난 리얼리즘적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1993.

4) 정주동·유창식 교주, 『진본청구영인』, 신생문화사, 1957, 600쪽.

5) 조규익, 『만황청류』, 수정증보판: 박이정, 1999, 93쪽.

2. 사설시조 이해의 전제와 가창공간, 그리고 불구

불구동물 등장 시조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청구영언(진본)』(이하 『청진』)의 서발에 나타난 대로 “무릇 당세의 호사가들이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손으로 펼치고 눈으로 보게(使凡當世之好事者 口誦心惟 手披目覽)” 하려는 의도에서 편찬되었는데 여기서 호사가들이 ‘외우고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 “노랫말이 음탕하고 뜻과 지취가 보잘 것 없어 죽히 본받을 만하지 못(辭語淫哇 意旨寒陋 不足爲法)”한 경우가 있었다. 『청진』의 독자는 ‘호사가’⁶⁾이며 이들이 독서한 내용에 ‘뜻과 지취가 보잘 것 없는 것이 있었다는 점은 불구동물 등장 시조를 이해하는 전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시조가 “賓筵之娛”⁷⁾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賓筵’은 서발에 나타난 대로 ‘뜻과 지취가 보잘 것 없는 노랫말이 진술되는 공간’이기에 그곳의 여러 정황 예컨대 주효와 음악의 구비, 연행의 순서, 악공과 기녀를 포함하여 참석자의 심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불구동물 등장 시조를 이해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사설시조 가창공간의 여러 정황은 “孫約正은 點心을 츠리고(#1673)”를 통해 알 수 있다.⁸⁾ 가창공간에서 연행은 ‘글짓고’→‘노래부르기’→‘女妓女花看’⁹⁾ 순서로 진행되었다. ‘노래부르기’ 단계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6) 여기서 호사가는 “사대부나 사대부와 동등한 정도의 교양과 경제력을 가진 이들(남정희, 「『청구영언』 편찬을 전후한 18세기 전반 경화사족의 시조향유 양상」, 『한국고전연구』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204쪽.)”이다.

7) 「放翁詩餘序」, 我國所謂歌者 只足以爲賓筵之娛; 『歌曲源流(河合本)』, 今之歌 只用以爲 賓筵之娛 歎可惜.

8) 孫約正은 點心을 츠리고 李風憲은 酒肴을 장만호소/ 거문고 伽倻琴 瑟琴 琵琶 笛鶯樂 長鼓 巫鼓 工人으란 禹堂掌이 드려오시/ 글짓고 노래부르기와 女妓女花看으란 내 다 擔當 호음식(#1673)

9) 연행순서는 유동적일 수 있지만 주효가 구비된 곳에서 연행순서가 ‘女妓女花看’→‘노래부르기’→‘글짓고’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가창공간의 성향에 따라 “글짓고 춤추고 노

‘진지한 발화’라 할 수 있는 평시조, 후반부는 ‘허튼소리’¹⁰⁾라 할 수 있는 사설시조이다. 허튼소리가 가창되는 상황에서 창자는 공간의 분위기와 관련된 것을 가창해야 하며 창자들 또한 동일한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¹¹⁾ 그래서 사설시조에서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은 “농담으로서의 성격이 사고내용에 있지 않”고 “형식이나 그것이 표현된 언어에서 농담의 성격을 찾아야”¹²⁾ 한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분위기를 돋우는 일이 사설시조의 가창과 관계한다 할 때 노랫말에서 ‘희극성’을 찾아내려 했던 논의들은 가창공간의 정황상 자연스런 일이다.

가창공간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불구동물 등장 시조는 그곳의 분위기를 돋우던 노래에 해당한다.

지암이 불기암이 존등 쪽 부러진 불기암이
 압발에 정중 나고 뒷발에 중괴 난 불기암이 廣陵십지 넘어 드러 가람의 허리를
 가로 물어 취혀 들고 北海를 건너단 말이 이셔이다 님아 님아
 원늬이 원말을 흐여도 님이 斟酌 흐소서(#134, 『청진』 포함 7개)¹³⁾

러부르길남 니 담당(#3056)처럼 ‘女妓女花看’의 단계가 생략되기도 했다. 물론 어느 단계이건 주효가 구비돼 있어 그것의 소비가 연행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10) ‘진지한 발화’와 ‘허튼소리’라는 표현은 김학성(『사설시조의 형식과 미학적 특성』, 『어문연구』30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90쪽.)에 의거함. ‘허튼소리’에 해당하는 사설시조는 ‘농담’인데 이에 대해서는 줄고, 『사설시조의 가창공간과 가창 참석자들의 심리-프로이트의 농담이론을 통해』, 『고전문학연구』27집, 한국고전문학회, 2005, 참조.

11) “소통의 즐거움(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286쪽.)”이나 “놀이는 질서를 창조하며 놀이 자체가 곧 질서가 된다(J. 호이징하, 『호모루덴스』, 권영빈 역, 홍성사, 1980, 19쪽.)”는 것에 기대지 않더라도 가창공간에서 분위기를 저해하는 노랫말이 가창되기 어렵다. 물론 “옛 풍습에 높은 수준의 가곡을 즐기는 층에서도 이삭대엽·삼삭대엽 등 무게 있고 근엄한 노래를 불러 나가다가 弄·樂·編으로 가면서 점차 멋과 흥으로 자즈러(장사훈, 『시조음악론』, 서울대출판부, 1986, 198쪽.)”지는 것처럼 노래의 속도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방편이다.

12) 프로이트,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임인주 옮김, 재간:열린책들, 2004, 23쪽.

초장과 중장에 ‘준등 쪽 부러’지고 ‘정종(疔腫)나고’ ‘종귀(腫氣)난’ 개미가 등장한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불구상태 곧 ‘입발에 정종’ ‘뒷발에 종귀 난’ 개미는 온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게다가 ‘준등 쪽 부러’졌으니 개미의 불구상태는 더욱 심각하기만 하다. 그러나 그런 불구상태에 있던 개미가 가람(蜚蜚)의 허리를 물고 北海를 건너갔다는 진술 이후 이것에 대하여 ‘넘이 斟酌 ㅎ’라고 한다. 불구상태에 있던 개미가 범을 물고 어디를 갔다는 진술은 ‘짐작할 필요도 없이 허위임에 분명하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제시한 후 이를 ‘넘이 짐작ㅎ’라는 형식은 고려 충렬왕대 「삼장」과 함께 가창된 「사룡」의 또 다른 모습이다. 「사룡」의 “有蛇含龍尾/聞過泰山岑/萬人各一言/斟酌在兩心”은 말조심(讒言)에 대한 진술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연희의 분위기가 어느 왕보다 사치스럽던 충렬왕대에 「사룡」이 「삼장」과 함께 가창됐다고 할 때 이 노래는 가창공간의 참석자들에게 ‘참언’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보다 가창공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기능을 했기 마련이다.¹⁴⁾ 「사룡」과 노랫말이 동일한 사설시조 “도고만 비얌이라서 龍의 초리 듕박이 물고/高峰峻嶺을 넘단말이 잇는이라/윈 높이 윈 말을 하여도 넘이 짐작 ㅎ 시소(#2606)”도 주효가 구비된 가창공간에서 ‘만황’이나 ‘룽’에 얽어 부르던 노래였던 만큼 ‘참언’이 아니라 그곳에 참가한 자들의 마음을 이완시키는 동시에 분위기를 돋우는 기능을 했던 것이다.¹⁵⁾ 물론 『청진』을 포함해 7개의 가집에 수록된 것을 보더라도 가창공간에서 인기있는 레퍼터리였다는 점을

13) 『청진』의 수록 여부와 가집의 수록 횟수를 나타낸다.

14) 이에 대해서는 졸저, 「쌍화점 주제의 다양성과 그 원인」, 『고려속요와 기녀』, 경인문화사, 2004, 107-126쪽 참조.

15) 물론 종장이 한결같이 ‘넘이 짐작ㅎ소서’로 끝맺는 사설시조는 모두 ‘참언’과 관련이 없다. ‘도고만 비얌이라서 龍의 초리 듕박이 물고(#2606)’, ‘심외산 새네 바희 감도라 휘도라(#1798)’, ‘大川바다 혼가온더 中針細針 썩지거다(#834)’, ‘기얌이 불기얌이 준등 쪽 부러진 불기얌이(#134)’, ‘玉의는 퇴나 잇니 말곳ㅎ면 다 넘이신가(#2113)’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짐작할 수 있다.

독거비 더 독거비 혼눈 멀고 다리저는 저 독거비
 혼 나리 업슨 파리를 물고 날넌체하야 두험쓰흔 우홀 속소다가 발짝 나뒤쳐
 지거고나
 모쳐로 몸이 날닐세만정 衆人僉視에 남 우릴번 흐거다(#923, 2개)

혼눈 멀고 혼다리 저는 두터비 서리 마즈 폰리 물고 두엄우희 치다라 안자
 건넌 山 브라보니 白松骨리 써 잇거늘 가슴에 금죽하여 플씩 쫓다가 그 아리
 도로 잣바 지거고
 나 못쳐로 날린 켈식만정 힝혀 鈍者 | 런둘 어혈질번 흐패라(#3159, 6개)

‘혼눈 멀고 다리저는[눈 하나 멀고 다리 저는]’ 두꺼비가 ‘날넌체[날써 칩]’
 하다가 ‘두험쓰흔[두엄 쌓은]’ 위에 ‘발짝 나뒤쳐[발짝 나자빠져]’ 있는 모습
 이다. 이 노래를 “당대의 부조리한 세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노출”¹⁶⁾된 것
 으로 이해하는 경우 두꺼비는 탐관오리, 파리는 무력한 사람을 가리키게 된
 다. 그러나 사실시조 이해의 전제와 가창공간을 고려할 때, ‘혼 나리 업[날개
 하나 없]’거나 ‘서리 마즈[서리 맞은]’ 상태에 있는 파리를 입에 물고 ‘날넌[날
 써]’ 칩하며 뛰는 두꺼비의 모습은 노랫말 그대로 ‘남 우릴[남들 웃길]’ 일이
 다. 무엇보다 ‘혼눈 멀고 다리저는[눈 하나 멀고 다리 저는]’ 불구의 두꺼비가
 불구의 파리를 통해 ‘날넌체하’는 모습은 “결점을 은폐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반대인 체하는 경향”에서 읽을 수 있는 “희극적인 점”¹⁷⁾이다. 그리고

16) 안윤호, 앞의 논문, 58쪽.

17) N.하르트만, 『미학』, 전원배 옮김, 을유문화사, 1995, 476쪽. 그리고 “희극적인 사람은 자
 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희극적이 된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
 들에게 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앙리베르그송,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7쇄), 정
 연복 옮김, 세계사, 1999, 23쪽).”이라 한다.

#3159의 ‘흔눈 멀고 다리저는(눈 하나 멀고 다리 저는)’ 두꺼비도 ‘서리 마즈 [서리 맞은]’ 파리를 입에 물고 날쌔 책을 하다가 ‘白松骨리 써 잇’는 것을 보고 허둥대며 자빠졌지만 여전히 자신을 ‘날린[날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923과 동일하다.

흔눈 멀고 흔다리 절고 痔疾三年 腹疾三年 邊頭痛 內外丹骨 알론 죠그만
숫가지고리가

一百원더 자장남개를 올은 제 그 수이 너겨 수로록 소로록 허위허위 소습 뛰
여 올라 안자 나릴제란 어니홀고 내 물내라 저 리고리
우리고 식님 거러두고 나중 몰라 흐노라(#3160, 『청진』 포함 8개)

위의 노래를 흔히 “힘 없고 약한 새끼 개구리를 통해서 나라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백성들이 지배계급에 의해 끊임없이 수탈당하고 속박당하던 당시의 사회상을 풍자”¹⁸⁾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앞서 언급했듯 불구동물이 등장했던 #134, #923, #3159와 유사한 기능을 했던 노래이다. 특히 ‘만황청류가 노랫말이 음탕하고 뜻과 지취가 보잘 것 없어 죽히 본받을 만하지 못’한 노래이듯 #3160도 이를 감안해 이해해야 한다. 눈이 멀고 다리도 절고 게다가 치질, 복통, 편두통까지 앓고 있는 새끼 개구리는 가창공간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온전한 상태에 있던 개구리가 ‘一百원더[150]’의 자작나무를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흔눈 멀고 흔다리 절고 痔疾三年 腹疾三年 邊頭痛 內外丹骨’의 새끼 개구리가 그것을 ‘수이 너[쉽게 여]’기며 ‘소습 뛰여 올라 안[숫구쳐 뛰어올라 앓]’는 일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기에 이 또한 초장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불구상태에 있던 새끼 개구리가 ‘一百원더’에 이르는 자작나무에 오른 것에 대하여 화자는 ‘나릴제란 어니홀고 내 물내라[내려갈 때는 어찌 할꼬 나 몰라라]’하며 불구상태에 있는 새끼 개구리와

18) 이민복, 앞의 논문, 73쪽.

일정한 거리를 둔다. 그리고 종장에 이르러 나를 포함한 우리들도 ‘시님 거리 두고 나중 몰라 흐’겠다고 한다. 가창공간에서 종장의 ‘거리두고’가 ‘掛’의 의미와 무관하게 관습적으로 ‘交脚’¹⁹⁾이었다는 점에서 ‘거리’의 주체는 ‘나중 몰라 흐’는 기녀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기녀가 ‘시님’을 ‘交脚’하고 나중에 벌여지는 일에 대해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은 기녀와 관련한 속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생이 되어 남자에게 샷갓을 씌우지 못하면 名妓가 아니다”²⁰⁾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자족적이지 못하다. 명기가 되려면 상대하던 자의 재산을 소진시켜야 하고 이에 대해 기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노랫말 그대로 ‘나중 몰라 흐’는 자이다. 결국 #3160에서 새끼 개구리는 기녀가 ‘나중 몰라 흐’며 샷갓을 씌울 자이기에 이 노래를 ‘앞날을 감당 못하는 소시민들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²¹⁾로 이해하기보다 문면 그대로 기녀가 상대하던 자들에 대한 그녀의 조롱을 읽을 수 있는 노래라 규정해야 한다. 여기서 ‘기녀의 조롱’은 단지 가창 분위기와 관련된 ‘소통의 즐거움’²²⁾을 위한 진술이지 참석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²³⁾ 그래서

19) 朴文郁이 지은 “등과 僧과 萬疊山中에 만나 어드러로 가오 어드러로 오시는게/山쪽코 물 좇흔디 갈씨를 부쳐보오 두 곳같이 혼디 다하 너픈너픈 흐는 樣은 白牧丹 두 퍼귀가 春風에 휘트는 듯/암아도 空山에 이썰음은 중과 僧과 둘 뿐이라 (#2657)”에 대하여 김수장이 “僧尼交脚之歌 千古一談”으로 평가한 것을 통해서도 ‘썰음’이 가창공간에서 관습적으로 ‘걸다:交脚’으로 통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걸다’와 관련한 사실시조로 #107, #513, #1985, #2720 등이 있다.

20) 기녀가 상대하던 자가 샷갓을 쓰는 것은 “가산을 탕진한 까닭에 의관을 갖추지 못(이능화, 『조선해어회사』, 이재곤 옮김, 동문선, 1992, 238쪽)”했기 때문이다.

21) 조규익, 앞의 책, 93쪽.

22) ‘소통의 즐거움’은 “자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의 즐거움(박성봉, 앞의 책, 286쪽)”이고 ‘소통의 고통’은 자아가 개입돼 서로에게 “행위하라는 명령, 도움을 요청하는 고함, 요구, 설득(같은 쪽)”하려는 데서 발생한다. 사실시조 가창공간은 전자처럼 소통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23) 『왕서방 연서』라는 노래가 “명월이한테 반해서 비단이 팔아 모은 돈 통통 털어 다 썼”던 왕서방을 조롱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동물의 생태와 인간세계 실상간의 유사성을 드러내어 약삭빠르고 어리석은 인간을 경계한 것”²⁴⁾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가창공간의 여러 정황을 고려한다면 ‘교훈적’이기보다는 그곳의 분위기를 돋우는 기능을 하던 노래였다는 점은 『청진』을 포함해 8개의 가집에 수록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불구동물 등장 시조가 가창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논의했다. 이제는 왜 불구를 소재로 삼았는지 그리고 왜 불구와 관련된 동물이 개구리, 두꺼비, 불개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필 차례다.

불구가 등장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불구가 희극적 상황을 만드는 데 용이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창공간의 참석자 중에 특정인이 선호할만한 소재라는 것이다. 먼저 불구를 소재로 한 시조[#923, #3159, #3160]는 ‘병신 육갑하네’라는 속담을 연상케 한다. 이런 속담은 “병신의 몸에 대한 경멸과 조롱”으로, 불구가 아닌 자들은 불구자를 “놀리고 공격하더라도 안전이 보장”²⁵⁾된다는 심사에서 출발한다. 특히 공격대상이 ‘소경’이나 ‘중’인 경우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경멸 및 조롱’을 하더라도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소재로 그들이 최적이었기 때문이다.²⁶⁾ 물론 “신체가 정상적인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기형이라면 어떤 것이든 희극적”²⁷⁾이기에 ‘흔 눈 멀고 혼다리 절고~(#3160)’과 ‘두꺼비 더 두꺼비 혼눈 멀고 다리저는~(#923)’과 ‘흔눈 멀고 혼다리 저는~(#3159)’처럼 불구상태에 있는 것들이 온전히

24) 조규익, 앞의 책, 93쪽.

25)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고전문학연구』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16-317쪽.

26) 아이들의 유희요 중에 ‘경멸과 조롱’을 할 때 ‘중’이 등장하는 경우가 “중이중아 짜짜중아 /……/인두불로 지질중아(김소운 편, 『언문조선구전문요집』, 제일서방, 1933, 51쪽.)”처럼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히튼소리가 진술되는 가창공간에서 기녀가 공격대상으로 삼을만한 소재로 파계승을 선호했을 가능성은 크다. 특히 파계승의 노골적인 성 행각은 가창공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가장 합당한데 이에 대해서는 즐고, 「파계승 등장시조와 ‘물아레 그림자~’, 김용성·김영 외, 『한국문학연구의 현단계』, 역락, 2005, 참조.

27) 앙리베르그송, 앞의 책, 28쪽.

보거나 걷는 척을 하는 것은 가창공간에 있던 불구가 아닌 자들에게 희극적이다. 이런 경우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술이라 하면 물 들혀듯하고 飮食이라 하면 흰 물등에 서리황다앗듯
 兩水腫다리 잡조지 팔에 할기눈 안팎 솟장이고자 남진을 만석등이라 안쳐
 두고 보라
 窓맛기 통매장스 네나 즙고 니저라(#1743, 3개)

화자의 ‘남진[남편]’은 알콜중독과 거식증이 있다. 게다가 다리는 ‘兩水腫 다리[부은 다리]’이고 팔은 ‘잡조지[쟁기 중간에 박아 놓은 나무]’이고 눈은 ‘할기[사팔뜨기]’이고 등쪽은 ‘안팎솟장[안팎으로 곱사등이]’이다. 어찌보면 형편없이 만들어 놓은 ‘만석등[꼭두각시]’과 다름 아니다. 여러 불구 중에서 화자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고자[성불구]’이기에 화자는 차라리 뜨내기 장사꾼에게 ‘네나 즙고[너나 자고]’ 가라 한다. 여기서 남편의 팔을 비유한 ‘잡조지’를 ‘冪似’로 판단하는 경우, ‘잡’은 ‘쓸데없는’의 의미이고 ‘조지’는 ‘남성의 생식기’이다. 곧 남성 생식기를 가리키는 단어와 ‘이’가 연음되어 ‘아무 쓸모없는 남자 생식기’로 바뀌기에 종장에서 화자가 ‘네나 즙고’ 가라고 진술한 것이다. 자기 남편을 ‘고자’라고 폭로하는 일과 장사꾼에게 ‘즙고’ 가라고 진술하는 것, 그리고 ‘잡조지’의 음사는 가창공간의 참석자들이 희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이다. 물론 신체를 부위별로 나누어 심각한 불구라는 점을 지적한 것 또한 희극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로 농담이 진술되는 공간에는 “농담을 하는 사람 외에도 적대적이고 성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쾌락의 생성이라는 농담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제삼자”²⁸⁾가 있다. 여기서 농담을 하는 자는 가창자이고 적대적이

28) 프로이트, 앞의 책, 129쪽.

고 성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기녀, 그리고 농담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청자에 해당한다.²⁹⁾ 그런데 가창공간에서 적대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기녀인데 그녀는 “음담패설을 들음으로써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의 흥분을 깨닫게 되어 스스로도 성적으로 흥분”³⁰⁾되는 자이다. 물론 음담패설에 친연했던 기녀가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녀는 ‘酒宴席이나 風流場’에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 그곳에 참석한 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모습을 취해야 한다. 그녀는 어떠한 공격에도 유연히 대처해야 하기에 가창공간에서 그녀가 공격할만한 대상은 딱히 없는데 이는 ‘女妓女花看’이란 극단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으면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공격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불구를 소재로 한 시조(#923, #3159, #3160)가 등장한 또 다른 이유에 해당한다. 결국 불구는 희극적 상황과 연계되는 것은 물론 가창공간에서 기녀가 공격대상으로 선호할만한 소재였던 것이다.

시조에 여러 동물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 동물들은 특이하게도 ‘경멸 및 조롱’과 관련된 불구상태로 등장하지 않는다. 기러기, 두견새, 매, 두루미, 닭, 꿩, 원앙 등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외로움과 고독감을 심화시키는 기러기(#83, #1159, #1512)와 두견새(#1185, #1443), 妓業에 갓 들어온 기녀를 가리키는 매(#1528), 長壽를 상징하거나 隱逸處士의 벗인 두루미(#3152), 이별을 재촉하는 닭(#556), 일방적으로 쫓기는 사냥감인 꿩(#440), 튼실한 부부애를 의미하는 원앙(#1333) 등이 그것이다. 다만 불구와 관련해 나타나는 동물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개구리, 두꺼비, 불개미이다. 이들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경멸 및 조롱’의 대상으로 삼기에 합당한

29) 이에 대해서는 좋고, 「사설시조의 가창공간과 가창 참석자들의 심리-프로이트의 농담이론을 통해」, 참조.

30) 프로이트, 앞의 책, 126쪽.

면을 지냈기 때문인데 이는 속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옛 처지를 망각하고 교만하거나 건방진 자를 욕할 때 '개구리 울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고, 몹시 망측한 꼴을 당해 창피해서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경우를 '뒤틀간 개구리한테 하문을 물렸다'고 한다.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일이 옹졸한 사람을 가리켜 '두꺼비 콩대에 올라 세상이 넓다 한다'거나 애매하게 화를 당하거나 벌을 받아 억울한 상태를 '애매한 두꺼비 떡돌에 치인다'가 있다.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로, 눈앞의 이익을 보고 생각없이 덤벼드는 모습을 '단끝에 덤비는 개미떼'라 한다. 속담과 관련해서 개구리, 두꺼비, 개미는 하찮거나 어리석은 대상으로 나타난다.³¹⁾ 이들이 이러한 속담과 결부된 것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면서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누구건 동의할 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허튼소리'가 가창되는 공간에서 '진지한 발화'가 등장하는 경우 공간의 분위기를 저해하기에 참석자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실제로 "놀이의 장의 내부에는 하나의 고유한 절대적인 질서가 지배"하는데 그 질서는 "절대적이며 최상적인 것"으로 "약간의 차질이 생겨나도 '그 게임은 파괴되고' 놀이로부터 그 성격을 빼앗아 가며 놀이 자체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³²⁾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담이 진술될 때 특정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데 가창공간에서 이에 해당하는 자는 바로 기녀로 그녀는 분위기를 유지하며 누구건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불구동물'이었던 것이다.³³⁾

31) 결코 작은 것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적인 내용인 '개미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다'도 있지만 여기서 '개미'는 '아주 소홀한 대상'이다. 물론 '개미 금탑 모으듯[떠뜰 모아 태산]'에서 '개미'는 금탑과 상대적인 '아주 하찮은 것'으로 설정돼 있다.

32) J. 호이징아, 앞의 책, 19쪽.

33) 앞에 언급했듯이 파계승 등장 시조도 이에 해당한다.

3. “靑개고리 腹疾하여 주근 날 밤~”의 해석

불구동물 등장 시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불구동물과 관련이 없지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靑개고리 腹疾하여 주근 날 밤의
金두텁 花郎이 존호고 새남갈의 靑뿔독 거대는 杖鼓 던더러쿵 호느의 黑뿔
독 典樂이 저힐니리훈다
어디서 돌진 가재는 舞鼓를 동등치느리(#2834, 『청진』~포함 13개)

여러 동물들이 청개구리가 죽은 날 밤에 중장에 나타난 대로 ‘존호고 새남 [지노귀새남; 죽은 자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곳]’ 때문에 모여서 각자 말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동물과 악기연주를 결부시킨 만큼 이 노래를 “동물을 의인화하여 그의 생애를 해학적으로 표현”³⁴⁾했거나 “인간행사의 허황됨”³⁵⁾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시조 가장공간과 관련된 다음의 노래에 기대 #2834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티획이 즈닐낭은 호아장출 환미쥬호고
엄즈롱 즈닐낭은 동강칠이탄의 은린옥척 낙거 안주 담당호쇼 도연명 즈니는
무현금을 등지덜아 등실타고 장즈방 즈니는 계명손 쉼야월 옥통쇼만 슬피 부쇼
그눔아 글짓고 춤추고 노리부르길낭 니 담당(#3056)

이태백, 엄자롱, 도연명, 장자방에게 각각 환미쥬[술], 은린옥척[물고기 안주], 무현금, 옥통쇼를 맡게 하고 화자는 ‘글짓고 춤추고 노리부르’기를 담당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거론된 자들은 역사나 고사 속의 실재인물이 아니

34) 정주동·유창식 교주, 앞의 책, 600쪽.

35) 조규익, 앞의 책, 93쪽.

라 가창공간에 참석한 자들끼리 암묵적으로 통하던 별칭들이다. 이태백, 엄자릉, 도연명, 장자방은 각각 술, 낚시, 시인, 책을 연상시키는 인물로 가창공간에서 주효가 풍성하고 참가자들이 일정한 소양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과 관련돼 있다. 시조의 가창공간이 '글짓고'→'노래부르기'→'女妓女花看'으로 진행되기에 그곳의 주효와 참가자들의 소양은 분위기를 돋우고 유지 및 고조시키는 데 필요한데 특히 참가자들이 그곳에서 '소통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은 만큼 그러한 바람을 진술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 때 '靑개고리 腹疾 訶여 주근 날 밤의~(#2834)'도 이러한 맥락에서 두 가지의 경우로 이해해야 하는데, 첫째로 靑개고리, 靑뿔독, 黑뿔독, 돌진 가재는 실제 '동물'이 아니라 그곳에 참석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참석자의 신분은 무당의 별칭인 화랑, 굿을 할 때 풍악을 담당하는 겨대(繼隊), 궁중음악의 벼슬아치인 典樂이고 그들이 담당할 악기는 杖鼓[靑뿔독이], 저[黑뿔독이], 舞鼓[가재]이며 악기의 소리도 각각 '던더러쿵' '힐니리' '둥둥'으로 나타난다. 악기가 결부돼 있지 않은 화랑은 그곳에서 가무를 담당했던 자에 해당한다. 참석자들과 악기 등을 고려하면 청개구리의 '즌호고 새남[지노귀새남]'은 그의 녀이 극락으로 갈 정도로 충분히 준비돼 있는 셈이지만 이 노래가 『청진』을 포함해 13개 가집에 수록될 정도로 가창공간에서 인기있는 레퍼터리였다는 점에서 '죽은 자의 녀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즉 '겨대'와 '전악'이 함께 참가할 정도의 질편한 고풍에서 가무와 악기를 담당할 자들을 시조에 가창공간에 견인하여 그곳의 분위기를 돋워 '소통의 즐거움'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이유를 앞의 #3160에 기대 생각할 수 있는데, '흔눈 멀고 흔다리 절고 痔疾三年 腹疾三年 邊頭痛 內外丹骨 알론 죠그만 솟기이고리(#3160)'는 샷갓을 쓸 정도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가창공간의 연행에 미숙한 '기녀의 조롱대상'이었다. 새끼 개구리는 '거러두고 나중 몰라 흐'

는 기녀의 존재를 모르고 ‘나릴제[내려올 때]’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一百원 디 자장남계’를 오르며 분별없이 가산을 탕진하거나 가창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정황들 예컨대 가창순서나 가창분위기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자였다.³⁶⁾ 그래서 #2834의 ‘靑개구리의 죽음’은 #3160의 새끼 개구리에 해당하는 자가 가창공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혹은 가창공간의 분위기를 돈을 줄 모르는 참가자일 수도 있다. 어쨌건 ‘즌호고 새남[지도귀새남]’의 질편한 풍악을 견인한 가창공간은 악기 소리처럼 ‘던터러쿵’ ‘힐니리’ ‘둥둥’ 울리는 곳이었던 것이다.³⁷⁾

4. 결론

사설시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불구동물 등장 시조는 ‘진지한 발화’가 아니라 ‘허튼소리’가 진술되는 단계에서 가창된다. “기암이 불기암이 존등 쪽 부러진 불기암이(#134)”와 “흔눈 멀고 다리저는 저 독거비(#923·#3159)”, 그리고 “痔疾三年 腹疾三年 邊頭痛 内外丹骨 알론 죠그만 슷기기고리(#3160)”를 가창공간에 기대어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개구리, 두꺼비, 개미의 행동은 희극적이다. 그리고 불구가 아닌 자들은 불구를 ‘경멸과 조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할 때 자신의 불구를 인정하지 않고 온전하게 행동하는 불구동물 등장 시조는 희극적인 부분이 더욱 강화된 노래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을 불구로 설정한 것은 일상에서 발견하기 쉽고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누구건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진』

36) 이런 자들이 가산을 탕진했다고 해서 가창공간 출입을 당장 끊는 것은 아니다. 돈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그 근처를 배회하기 마련이다.

37) 물론 #2834의 곡조가 만흥청류, 낙시조, 소용 등이었다는 점도 『청진』을 포함하여 13개의 가집에 수록된 이유일 터이다.

에 수록돼 있는 사설시조 #134, #2834, #3160에서 #3160의 새끼 개구리는 '식념 거러두고 나중 몰라 흐'는 기녀의 속성을 모른 채 그저 나무에 오르는 일에 전념하던 자로 기녀의 조롱대상이었다. 새끼 개구리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행동을 한 것은 뻔한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가창공간에 있던 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끝으로 13개의 가집에 실릴 정도로 인기있는 레퍼터리였던 #2834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노래였다. 청개구리의 죽음과 나머지 동물들의 풍악이 대비된 #2834에서 청개구리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3160에 등장한 새끼 개구리이거나 혹은 공간의 분위기를 이미 저해했던 참가자가 가창공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결국 가창공간의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경우, 불구동물 등장 시조는 교훈적이거나 비판적 시각과 관련된 게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를 유지·고조시켰던 노래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곡원류』

『청구영언』

김학성, 「사설시조의 형식과 미학적 특성」, 『어문연구』30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90쪽.

남정희, 「『청구영언』 편찬을 전후한 18세기 전반 경화사족의 시조향유 양상」, 『한국고전연구』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204쪽.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고전문학연구』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16-317쪽.

이민복, 「사설시조에 나타난 골계미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1987. 73쪽.

안윤호, 「사설시조에 나타난 리얼리즘적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1993. 58쪽.

이영대, 「사설시조의 가창공간과 가창 참석자들의 심리-프로이트의 농담이론을 통해」, 『고전문학연구』27집, 한국고전문학회, 2005.

이영태, 『과계승 등장시조와 ‘물아래 그림자~’』, 김용성·김영 외, 『한국문학연구의 현 단계』, 역락, 2005.

김소운 편, 『언문조선구전문요집』, 제일서방, 1933. 51쪽.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286쪽.

심재완 편, 『교본 역사시조전서』, 재판:세종문화사, 1972.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이재근 옮김, 동문선, 1992. 236쪽.

이영태, 『고려속요와 기녀』, 경인문화사, 2004. 107-126쪽.

장사훈, 『시조음악론』, 서울대출판부, 1986. 198쪽.

정주동·유창식 교주, 『진본청구영언』, 신생문화사, 1957. 600쪽.

조규익, 『만황청류』, 수정증보판; 박이정, 1999. 93쪽.

앙리베르그송,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7쇄), 정연복 옮김, 세계사, 1999. 23-28쪽,

J. 호이징하, 『호모루덴스』, 권영빈 역, 홍성사, 1980. 19쪽.

프로이트,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임인주 옮김, 재간:열린책들, 2004. 23쪽, 126쪽, 129쪽,

N.하르트만, 『미학』, 전원배 옮김, 을유문화사, 1995. 476쪽.

〈Abstract〉

Interpretation of Shijo poems which featured handicapped animals and “The night a green frog ached its stomach to death”

Lee, Young-tae

This article aims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sentence “The night a green frog ached its stomach to death~”, based upon the characteristics of certain Shijo poems which featured handicapped animals. Many Shijo poems feature animals, but they rarely feature them in a handicapped state. In those cases, readers usually try to identify the intentions of the author with the unjust and wrongful situations of the time the poem was written, but yet another interpretation could be presented, considering the premise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Saseol Shijo poems. Only among Saseol Shijo poems handicapped animals can be found in a Shijo text, and they are referred to and sung not in the stage of ‘serious outbursts’ being fired but during the stage of ‘hollow jokes’ being made. Any handicapped condition that an unhandicapped one could imitate could be imitated for humor, so the actions of a frog, a toad or an ant which forgot their own inabilities can be considered very comic and farcical in the eyes of the readers embracing the contents of the poem. In “The night a green frog ached its stomach to death~”(#2834), the death of the green frog is no ordinary death. This particular frog could be referring to the baby frog which appeared in #3160, or the entire sentence could be referring to the fact that a particular figure which had already disrupted the atmosphere of the world inside the poem is no longer present in that world. Considering all these conditions inside the poem’s own world, Shijo poems which featured handicapped animals were not meant to be delivering any kind of educational or critical messages, but they were rather either maintaining or heightening the mood inside the poem’s own world.

Key Words : handicapped, Shijo poem, jokes, edification, atmosphere

이 논문은 2008년 11월 30일(월)까지 투고 완료되어,
2009년 1월 4일(일)부터 1월 14일(수)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09년 1월 22일(목)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